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창세기 30 주차 (창 25:1~26:11)

(2016년 7월 10일 - 2016년 7월 16일)


(제 4 권 30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 4 권-제 30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7 월 10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5:1~11 절)

- (1 절)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וַיִּקַּח אַבְרָהָם וְשֵׁמָּה קַטּוּרָה)
- (2 절)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시므란과 욱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וַתֵּלֶד לוֹ אֶת־זִמְרָן וְאֶת־יִקְשָׁן וְאֶת־מִדְּוָן וְאֶת־מְדָנָה וְאֶת־יִשְׁבָּק וְאֶת־שׁוּאָה)
- (3 절)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습니다. (וַיִּקְשָׁן יָלַד אֶת־שָׁבָא וְאֶת־דָּדָן)
드단의 자손은 앓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 그리고 르움미 족속이었습니다.
(וַיְבַנֵּי דָדָן הָיוּ אַשּׁוּרִים וְלַטּוּשִׁים וְלִרְעִיָּים)
- (4 절)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 하녹과 아비다, 그리고 엘다아이였습니다.
(וַיְבַנֵּי מִדְּוָן עֵיפָה וְעִפְרָה וְחַנֹּךְ וְאַבְדֵּעַ וְאַלְדֵּעָה)
이들 모두는 그두라의 자손이었습니다. (כָּל־אֵלֶּה בְנֵי קַטּוּרָה)
- (5 절)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וַיִּתֵּן אַבְרָהָם אֶת־כָּל־אֲשֶׁר־לוֹ לְיִצְחָק)
- (6 절) 하지만 아브라함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וְלִבְנֵי הַפִּילִגְשִׁים אֲשֶׁר לְאַבְרָהָם נָתַן אַבְרָהָם מַתָּנָה)
그리고 그들을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떠나보냈습니다. (וַיִּשְׁלַחֵם מֵעַל יִצְחָק בְּנוֹ)
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בְּעוֹדָו חַיִּי)
동쪽의 땅을 향해 동쪽으로, (קִדְמָה אֶל־אַרְצָא קִדְמָה)
- (7 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이입니다: 175 세
(וְאֵלֶּה יְמֵי שְׁנֵי־חַיֵּי אַבְרָהָם אֲשֶׁר־חָיָה מֵאֵת שָׁנָה וְשִׁבְעִים שָׁנָה וְחָמֵשׁ שָׁנִים)
- (8 절) 아브라함은 살 날이 다 되었고, 늙고 딱 찬 나이에 죽었습니다.
(וַיָּגוּעַ וַיָּמָת אַבְרָהָם בְּשִׁיבָה טוֹבָה זָקֵן וְשָׂבֵעַ)
그리고 그의 사람들(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וַיֵּאֱסֹף אֶל־עַמּוּיוֹ)
- (9 절)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장사하였습니다.
(וַיִּקְבְּרוּ אֹתוֹ יִצְחָק וַיִּשְׁמַעְעָל בְּנָיו אֶל־מְעַרַת הַמַּכְפֵּלָה)
마르레 앞에 있는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땅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אֶל־שְׂדֵה עֶפְרָן בְּנִצְחָר הַחֲתָי אֲשֶׁר עַל־פְּנֵי מְמָרָא)
- (10 절)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 가서 산 땅에, (הַשְּׂדֵה אֲשֶׁר־קָנָה אַבְרָהָם מֵאֵת בְּנֵי־חֵת)
그곳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묻혔습니다. (שָׁמָּה קָבַר אַבְרָהָם וְשָׂרָה אִשְׁתּוֹ)
- (11 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וַיְהִי אַחֲרַי מוֹת אַבְרָהָם וַיְבָרֶךְ אֱלֹהִים אֶת־יִצְחָק בְּנוֹ)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וַיֵּשֶׁב יִצְחָק עַם־בְּאֵר לַחַי רֵאִ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함으로써 그에게 모든 상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관심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간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한 직후 이삭

의 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삭을 떠난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 여섯 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자식 문제로 고생한 것을 감안하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두라를 통해 자녀를 하나씩 낳을 때마다 허탈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식이 문제가 되질 않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자녀 문제로 아브라함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말년은 그야말로 자식 풍년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한 직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들였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이다. 그가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살이었는데 그나이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식을 소망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아브라함이 140살이 넘는 나이에 무려 여섯 명의 아이를 더 낳은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마저 하나님이 철저히 통제해 오셨다는 뜻이 된다.

그가 새로 맞이한 후처의 이름이 재미있다.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הַרְטוּרָה)다. ‘희생 제물로부터 나오는 향 또는 연기’라는 뜻이다. 이삭을 떠나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35년 간의 그의 여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기 같은 삶이었다. 마치 희생 제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일흔 다섯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후 25년이 지난 100세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고, 137세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저세상으로 보냈다. 그리고 3년후 이삭을 결혼시켰다. 이로써 구속사적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모든 역할이 끝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할 일을 끝낸 아브라함의 인생이 희생 제물이 되어 연기처럼 흩어진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부를 예배로 받으셨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진정한 의미다.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자기 고향에 정착해 살면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며 살았을 법도 한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영화를 안겨 주시지 않았다. 자식이 복의 척도였던 당시의 관습으로 봐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복을 주시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약속한 땅을 주신 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 기근을 만나면 식량을 얻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물이 없으면 우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거나 직접 우물을 파야 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졌고, 자기 핏줄을 이어 받은 첫 아들 이스마엘과도 생이별 해야 했다. 하나님은 그가 백세가 되어서야 약속했던 아들 이삭을 주셨다. 달랑 그뿐이다. 그의 아내 사라를 아들 하나 낳고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고장을 이렇게 적고 있다.

“아브라함, 그는 살 날이 다 되어 늙고 딱찬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창 25:8).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부고장을 받았다. 그가 죽었다. 살 날이 다 되어 늙고 딱찬 나이에 죽어서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다. 부고장에 적힌 그의 마지막이 웬지 공허하고 안쓰럽게 여겨지는 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하신 약속 중 그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가나안은 여전히 남의 땅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사백년 종살이를 끝낸 후에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햇 족속으로부터 헤브론 한 구석에 있는 막벨라 굴만 겨우 자기 소유로 가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땅은 살아서 누리는 땅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시신을 안치하는 장지다. 게다가 자기가 땅값까지 직접 지불하고 샀다. 자손에 관한 약속은 또 어떤가?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

만 그 약속은 오히려 그의 평생에 고통과 한을 가져다 주었다. 약속만 믿고 있다가 끝내는 자기 힘으로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의 나이 백세가 되어 본처 사라에게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은 게 다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 노년에 후처로 들인 그두라에게서 여섯 명의 자녀를 더 얻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약속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그의 삶에서 어떤 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디에서 뭘 하며 살았든 그 정도의 부는 누리지 않았을까? 오히려 먼 이방 땅에서 친구도, 친척도 없이 나그네 삶을 살아간 그의 삶을 과연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이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헤매는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아내를 팔아 먹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은 삶이다. 따라서 그의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훈련의 과정인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너무도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우리 중에 섞여 있다 해도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을 사람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을 불러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다.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평범한 삶 속에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범부 아브라함이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4:1-5).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다. 당신의 손에 아브라함의 부고장이 들려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부고장을 읽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것처럼 당신의 삶도 하나님에 의해 훈련 받는 과정임을 믿고 있나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워 가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삶과 그의 아들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5:12~18)

(12 절) 이것은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וְאֵלֶּה תְּלֹדֹת יִשְׁמָעֵאל בֶּן-אַבְרָהָם אֲשֶׁר יָלְדָה הָגָר הַמִּצְרַיִת שְׁפָחַת שָׂרָה לְאַבְרָהָם.)

(13 절) 이것은 그들의 이름과 그 세대를 따른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וְאֵלֶּה שְׁמוֹת בְּנֵי יִשְׁמָעֵאל בְּשֵׁמֹתָם לְתוֹלְדֹתָם)

이스마엘의 첫째 느바웃, (בְּכֹר יִשְׁמָעֵאל נְבִיִּית)

그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 (וְאַדְבָּאֵל וּמִבְשָׁם)

(14 절)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 (וּמִשְׁמַע וְדוּמָה וּמִשָּׂא)

(15 절)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 (וְחֶדֶד וְתִימָא יִטּוּר נְפִישׁ וְקֶדְמָה)

(16 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었습니다. (אֵלֶּה הֵם בְּנֵי יִשְׁמָעֵאל)

이것은 그들 촌과 부락을 따른 이름들이었습니다. (וְאֵלֶּה שְׁמֹתָם בְּחֻצְרוֹתָם וּבְטִירְתָּם)

그들의 족속을 따라 12 지도자들이었습니다. (שְׁנַיִם-עָשָׂר נְשִׂיאִים לְאַמְתָּם)

(17 절) 이것은 이스마엘이 살았던 나이입니다: 137 세

(וְאֵלֶּה שְׁנֵי חַיֵּי יִשְׁמָעֵאל מֵאֵת שְׁנָהּ וּשְׁלֹשִׁים שְׁנָהּ וְשָׁבַע שָׁנָיִם)

그는 살 날이 다 되었고 죽었습니다. (וַיָּגֹעַ וַיָּמָת)

그리고 그의 사람들(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וַיָּאָסֶף אֶל-עַמּוּיוֹ)

(18 절)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앓수르로 통하는 이집트 앞 숲까지 거주하였습니다.

(וַיֵּשְׁבוּ בְּנֵי מִחְוֵילָה עַד-שׁוּר אֲשֶׁר עַל-פְּנֵי מִצְרָיִם בְּאַכָּה אֲשֶׁרָה)

그는 그의 모든 형제의 반대편으로 떨어졌습니다. (עַל-פְּנֵי כָל-אֶחָיו נִפְ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의 부고를 전한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 언급한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서 태어났다. 말이 첩이지 하갈은 여주인 사라의 몸종에 불과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하갈의 지위가 격상되어 아브라함이 그를 후처로 인정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이스마엘은 출신 배경 자체가 어정쩡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어머니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신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그를 상속권자로 생각했다. 적어도 동생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아흔 아홉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는 단지 웃어 넘겼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다. 1년 후에 동생 이삭이 태어났다. 자기 어머니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말이다. 그때부터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찬밥 신세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를 여전히 맏아들로 생각하며 함께 살고자 했다. 그러나 사라는 달랐다. 이삭을 낳은 후 사라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삭이 태어난 후 이스마엘의 위

치는 그야말로 꺾다놓은 보릿자루보다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이삭이 젖을 때는 날이 왔다.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를 벌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마엘은 어린 동생 이삭이 너무도 부러웠다. 자기는 이런 성대한 잔치는 커녕 변변한 생일상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삭으로 인해 자기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간다. 이스마엘은 그날의 주인공인 이삭이 너무도 못마땅했으리라. 그는 이삭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며 조소를 보냈다. 여주인인 사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해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많은 성경 독자들은 이스마엘에 대해 공연한 적대감을 갖는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게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한다. 물론 이 사건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 일로 쫓겨난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탈수증으로 죽을 뻔 했다. 그 이후로 그의 이름은 영영 잊혀져 갔다.

이스마엘의 삶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 약해질 무렵에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소망이 사라져 갈수록 그의 위상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스마엘은 그런 존재였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죄절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한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강조하며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경멸한다. 다시 말해 율법이 은혜를 박해한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율법의 요구를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피한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율법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도로 끌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경멸하고 비웃는다. “믿는다면서 그리 사나?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어떻게 그러고도 낫짝을 들고 다니나?”라며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다시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라고 으박지른다.

이스마엘은 쫓겨났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살아 남았고, 그의 자손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반대편인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당시 유프라테스강 북쪽 상류에 있는 앗수르에서부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 지역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살았다. 이스마엘은 137 살에 죽었다. 서자로 태어나 서서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가 태어나서 한 역할은 무엇일까? 이삭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탱해 준 게 아닌가? 그러다가 그의 역할이 끝났을 때 그는 쓸쓸히 무대 밖으로 퇴장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자. 혹시라도 우리 중에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쓸쓸히 퇴장한 사람들은 없는가?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이 희생되었는지 모른다. 그만큼 구원에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희생 없는 은혜는 없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나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까지 율법은 당신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5:19~21)

- (19 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입니다. (וְאֵלֶּה תּוֹלְדֹת יִצְחָק בֶּן־אַבְרָהָם)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וַיְהִי אֲבִירָהּ הוֹלִיד אֶת־יִצְחָק)
- (20 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 세였습니다. (וַיְהִי יִצְחָק בֶּן־אַרְבָּעִים שָׁנָה)
 밧단아람의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을 때, (בְּקִרְתּוֹ אֶת־רִבְקָה בַּת־רְבִיעַל הָאֲרָמִי מִפְּדוֹן אַרְבַּם אַחֹת לְבִן הָאֲרָמִי לוֹ) לְאִשָּׁה,
- (21 절) 이삭은 그의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וַיַּעֲמֵר יִצְחָק לַיהוָה לְנֹכַח אִשְׁתּוֹ)
 왜냐하면 그녀는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כִּי עֲקָרָה הָיְתָ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וַיַּעֲמֵר לוֹ יְהוָה)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했습니다. (וַתַּהַר רִבְקָה אִשְׁתּ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혼인할 당시 그의 나이는 마흔이었다.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지 3년이 되는 해다. 리브가와 결혼을 한 이삭은 그녀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결혼을 하고 한 해, 두 해가 흘러가면서 이삭은 물론 리브가도 마음이 초조해졌을 것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되질 않는 것이다. 특히 이삭은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사라는 아흔 살이 되어서야 자기를 낳았기 때문이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 없고 편하다는 말이다. 사실 이 속담은 자식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부모들의 자조섞인 푸념에서 비롯된 말이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에 겨워서 그런다’고 되받아 친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식,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그래서 혼인한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도 아들이 없는 여자들은 자식 문제가 인생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만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것으로 생각했다. 오죽했으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아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겠는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 자식을 갖는 것보다 자식이 없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도 남는 사건이다. 이런 일은 비단 사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도 같은 일을 겪었다. 야곱의 첫 아내이자 라헬의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동안 라헬에게는 자식이라곤 없었다.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편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없는 그녀의 고통을 달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몸종 빌하를 통해 아들을 얻었다. 대리 만족이라도 해야만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창세기 30 장 첫 부분은 그녀가 자식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창 30:1~6).

라헬은 자식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라헬의 이 말은 야곱을 헐박하기 위해 한 빈말이 아니다. 그녀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말이다. 라헬은 자기 몸종 빌하를 통해 아들을 낳자마자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외쳤다. 이 외침 속에 아들로 인한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절절히 배어있다. 그렇기에 자기 가배아파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흥미롭게도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돼있다. 성경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리브가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대신 이삭을 전면에 내세운다. 사실, 이삭은 여태까지 아들이 없는 것도 고통이긴 했지만 그보다는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게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21 절).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을 주신 거라며 기도를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리브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이삭이 드린 기도의 효력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을 한 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브가를 불임 상태로 두셨다. 이삭이 이 문제로 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며 기다리신 건 아니라는 점이다. 어찌면 이삭은 결혼한 지 한두 해가 지나가면서부터 하나님께 매달렸을 지도 모른다. 어머니 사라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도 늦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할까봐 지레 걱정하며 기도했을지 누가 아는가? 하지만 이삭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리브가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은 늘 때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대부분 삶에서 불편하고 성가신 것,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는 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꼭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분이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신다. 이삭도 그랬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이 혼인한 지 20년을 기다린 후에야 자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바람이나 소원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5:22~26)

- (22 절) 그아들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וַיִּתְרָצְצוּ הַבְּנִים בְּקֶרֶן הָ)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וַתֹּאמֶר)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אִם-כֵּן לָמָּה זֶה אֲנֹכִי) 그녀는 여호와께 묻기 위해 갔습니다. (וַתֵּלֶךְ לְדָרַשׁ אֶת-יְהוָה) (23 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לָהּ) 두 나라가 네 태중에 있다. (שְׁנֵי גֵיִם בְּבֶטְנֶךָ) 두 민족이 네 배 안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וּשְׁנֵי לְאֻמִּים מִמֶּעַיִן יִפְרְדוּ)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וְלֵאמֹם מְלֵאִם יֵאָמֵן)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길 것이다. (וְרַב יַעֲבֹד צָעִיר) (24 절) 그녀가 아이를 낳을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וַיִּמְלֵאוּ יָמֶיהָ לֵלֶדֶת וַהֲנִיָּה תוֹמֵם בְּבֶטְנָהּ) (25 절)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았습니다. (וַיִּצְאָ הָרֵאשֹׁן אֲדָמוּנִי כִּלּוֹ כְּאֲדָרְתַּת שְׁעָר)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וַיִּקְרָאוּ שְׁמוֹ עֵשָׂו) (26 절) 그뒤에, 그의 동생이 그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וַאֲחֵרֶיֶן כֹּן יֶצֵא אָחִיו וַיְדֹ אֶחָזֶת בְּעֵקֶב עֵשָׂו)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וַיִּקְרָא שְׁמוֹ יַעֲקֹב)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וַיִּצְחָק בֶּן-שָׁשִׁים שָׁנָה בְּלֶדֶת אֶתֶ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기도대로 이루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고, 이 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별났다. 아기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발로 배를 차는 일은 예사라지만 에서와 야곱은 아마도 그런 수준을 넘어선 모양이다. 리브가는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죽기살기로 싸우는 것을 알고 너무 걱정되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배 안에서부터 나누어 질 것이다.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길 것이다”(창 25:23).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분명했다. 먼저 나온 아들이 나중에 나온 아들을 섬기게 되어 있단다. 그렇다면 이들은 서로 늦게 나오려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해서 서로 둘째로 태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 것일까? 선부른 칭찬은 안 해도 될 듯하다. 이들은 서로 늦게 나오려고 싸운 게 아니라 먼저 나오겠다고 싸운 것이니까. 알다시피 그들이 태어날 때야

굽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의 뒷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뱃속에서의 결투에서 결국 패배하고 만 것이다. 승리는 형 에서의 뜻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온 에서가 늦게 나온 야곱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에서는 약속의 자녀 반열에서 탈락하고 만다. 야곱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선택되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가 무슨 선한 도덕적 행위를 해서도 아니다. 또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부른다. 사도 바울은 야곱이 선택되고 에서가 탈락된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롬 9:10~13).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의 운명을 갈랐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외친다. 무함마드나 석가나 공자도 아닌 오직 예수다. 성경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각자의 행위로 인한 인간의 의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은 일체의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카운트하지 말라 뜻이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누가 뭐라든, 구원받은 사람은 감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자기 존재의 실체를 절절히 깨달은 사람들이다. 죄로 인해 도저히 자력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들이다. 게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그 믿음조차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언약의 후계자가 되었듯이 말이다. 당신은 어떤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 삼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 이유를 계속 당신 자신에게서 찾아내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일 수도 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만한 자격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 자녀 삼아준 사람일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혹시나 맘 속으로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고 있지는 않나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늑은 죽 한그릇이 에서의 운명을 바꾸었을까? (목요일)

오늘의 묵상 (창 25:27~34)

- (27 절)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וַיִּגְדְּלוּ הַנְּעָרִים)
에서는 전문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וַיְהִי עֶשָׂו אִישׁ יָדַע צֹדֵד אִישׁ שָׂדֵה)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וַיַּעֲקֹב אִישׁ תָּם יֹשֵׁב אֹהֶלִים)
- (28 절)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וַיֵּאַהֲבֵב יִצְחָק אֶת-עֵשָׂו)
그가 사냥한 것을 먹으므로, (כִּי-צִיד בָּפִי)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וַרְבֵּקָה אֹהֶבֶת אֶת-יַעֲקֹב)
- (29 절) 야곱이 죽을 꿈였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지쳐있었습니다.
(וַיָּזַד יַעֲקֹב נָזִיד וַיִּבֹּא עֶשָׂו מִן-הַשָּׂדֵה וְהוּא עָיִף)
- (30 절)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עֶשָׂו אֶל-יַעֲקֹב)
나에게 그 붉은 것을 좀 먹게 해줘. (הֲלֹעֵיטָנִי נָא מִן-הָאֵדָם הַזֶּה)
나 지금 몹시 피곤해. (כִּי עָיִף אָנֹכִי)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에돔이라고 불렸습니다.) (עַל-כֵּן קָרָא-שְׁמוֹ אֲדָוָם)
- (31 절) 야곱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יַעֲקֹב)
형의 장자 권리를 오늘 나에게 팔라. (מִכֶּרֶה כִּי־וָם אֶת-בְּכֹרְתְךָ לִי)
- (32 절) 에서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עֵשָׂו)
보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הִנֵּה אָנֹכִי הוֹלֵךְ לְמוֹת)
장자의 권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וְלִמָּה-זֶּה לִי בְכֹרָה?)
- (33 절) 야곱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יַעֲקֹב)
오늘 나에게 맹세하라. (הִשָּׁבְעָה לִּי כִּי־וָם)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וַיִּשָּׁבַע לוֹ)
그의 장자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וַיִּמְכֹּר אֶת-בְּכֹרְתוֹ לְיַעֲקֹב)
- (34 절) 야곱은 에서에게 떡과 팔죽을 주었습니다. (וַיַּעֲקֹב נָתַן לְעֵשָׂו לֶחֶם וַנְּזִיד עֲדָשִׁים)
그는 먹고 마셨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וַיֹּאכַל וַיִּשְׂתֵּי וַיִּקָּם וַיֵּלֶךְ)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וַיִּבְזֶה עֶשָׂו אֶת-הַבְּכֹרָ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독하게 싸웠던 에서와 야곱이 성장해서 어느덧 청년이 되었다. 악착같이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뒷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늘 장막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여 전문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들로 다니며 사냥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 드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이삭은 그런 에서를 너무 좋아했다. 반면에 리브가는 늘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감싸고 돌았다. 아마도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있는데다가 큰 아들 에서와는 달리 유약해 보여서 더 맘이 쓰였을 수도 있었으리라. 여하튼 성장 과정을 보면 누가 보아도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남자로서의 능력도 그렇거니와 아버지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늘 그러듯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 장막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던 야곱은 그날 따라 죽을 끓였다. 물론 자기가 먹으려고 끓였을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다. 그날 따라 에서는 너무도 배가 고팠고, 몸도 지쳐 있었다. 지치고 배고픈 몸으로 들어온 그에게 야곱이 끓인 죽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야곱이 끓인 붉은 색의 죽은 배고픈 에서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에서가 야곱에게 부탁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내게 그 붉은 것을 좀 먹게 해줘”(창 25:30).

정상적인 형제사이라면 이런 부탁을 하면 “그래 먹어! 피곤하지?” 하고 기꺼이 나눠 먹는 게 정상이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간사하게도 야곱은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에서에게 엄청난 제안을 한다.

“형의 장자 권리를 오늘 나에게 팔라”(창 25:31).

장자권과 죽 한 그릇이 도대체 교환 가능한 것인가? 에서가 정말 배가 고프긴 했나 보다. 그는 야곱의 제안을 단번에 받아들인다. ‘지금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프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대수겠느냐? 게다가 기껏 말 한 마디 한다고 설마 그 장자권이 어디 가겠는가?’ 생각하며 동생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 사실 이 계약은 야곱이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므로 무효여야 한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의 이러한 알뜰한 술수와 악질적 행동을 비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에서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히 12:14~17).

언약 백성에게 있어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권리다. 오직 장자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기에 성경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다. ‘망령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베베로스 (βέβηλος)’인데 베베로스의 원래 의미는 ‘아무나 다 다닐 수 있는 장소’라는 뜻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하찮은 것을 의미한다. 지성소와 같은 곳은 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성스러운 곳이다. 반면 시장은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을 ‘베베로스’에 비유했다. 이 말은 에서가 자신이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장자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른 집과는 달리 에서가 가진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다.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시장이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고 평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에서는 그 중요한 장자권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한 그릇과 동일시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너무도 가볍게 여겼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했다.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 과정을 보면 너무 간사하고 야비하다. 그런데 그 야비한 행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장자권은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사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짜인 줄 알고 무턱대고 좋아한다. 은혜라는 말로 멋있게 포장하지만 엄밀히 말해 은혜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혜택’을 말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상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쉽게 비난한다. 물론 그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는가? 하나님과 화목할 다른 길이 있거나 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아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로 내몬 장본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는 모순 가득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결코 예서처럼 장자권을 가며 여길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를 염치 없이 모두 예수님께 넘기고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운 죄인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장자권을 획득하고자 갖은 꾀수를 쓰는 야곱을 쫓 빼뺐었다. 누구라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이미 야곱 그 자체다.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처럼...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장자권을 획득하기까지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나요? 그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6:1~5)

- (1 절)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וַיְהִי רָעָב בְּאֶרֶץ מִצְרַיִם הָרָעַב הָרִאשׁוֹן אֲשֶׁר הָיָה בְיָמֵי אַבְרָהָם)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샀습니다.
 (וַיֵּלֶךְ יִצְחָק אֶל-אַבְיִמֶלֶךְ מֶלֶךְ-פְּלִשְׁתִּים גְּרָרָה)
- (2 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רָא אֱלֹהֵי יְהוָה וַיֹּאמֶר)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אַל-תֵּרַד מִצְרָיִם)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에 머물러라. (שָׁכֵן בְּאֶרֶץ אֲשֶׁר אָמַר אֱלֹהֵי)
- (3 절) 이 땅에 머물러라. (גֹּר בְּאֶרֶץ הַזֹּאת)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וְאֶהְיֶה עִמָּךְ וְאַבְרַכְךָ)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כִּי-לֹךְ וְלִזְרַעְךָ אֶתְּנֶה אֶת-כָּל-הָאֲרָצַת הָאֵ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세울 것이다.
 (וְהִקְמַתִּי אֶת-הַשְּׂבֻעָה אֲשֶׁר נִשְׁבַּעְתִּי לְאַבְרָהָם אָבִי)
- (4 절)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할 것이다. (וְהִרְבִּיתִּי אֶת-זְרַעְךָ כְּכּוֹכְבֵי הַשָּׁמַיִם)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וְנָתַתִּי לְזְרַעְךָ אֶת כָּל-הָאֲרָצַת הָאֵל)
 네 자손으로 인해 이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וְהִתְבְּרָכוּ בְּזְרַעְךָ כָּל-גּוֹיֵי הָאָרֶץ)
- (5 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고, (עַקֵּב אֲשֶׁר-שָׁמַע אַבְרָהָם בְּקֹלִי)
 내 명령, 내 계명들, 내 규칙들,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וַיִּשְׁמַר מִשְׁמַרְתִּי מִצְוֹתַי וְתוֹרֹתַ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아버지에 그아들인가?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고난의 형태도,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도 너무 흡사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아브라함이 살아간 삶과 아브라함이 죽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삭의 삶은 그야말로 데칼코마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를 맞아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을 반긴 것은 많은 물도, 풍성한 곡식도 아닌 심한 기근이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 이집트왕 바로에게 넘겼다.

이번에는 아들 이삭 차례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냥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성경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그 땅”이라고 강조하며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굳이 그 사실을 밝히려 하고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 위기가 닥치면 결국에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인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편법을 부려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자에게 반드시

시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이다.

살 길이 막막해진 이삭은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아마도 그곳에 들러 응급 상황만 모면하고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이집트라면 나일강 하구의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다. 그의 사촌형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그 땅이 이집트 땅과 같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삭과 같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언제 기근이 닥칠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집트는 그야말로 꿈 같은 곳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의도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는 그 계획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나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창 26:2-5)

이 말씀은 경고이자 언약이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은 경고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 하나로 족하다. 아브라함을 통해 미래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할 운명은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가도록 놔두셨지만 이삭의 삶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삭에게 또 다시 선포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또 다시 이삭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언약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에게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다. 상기시켜 주실 뿐 만 아니라 언약대로 베푸신다. 이 순간 이삭은 단지 언약을 맺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간혹 자신이 모태 신앙임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앙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 말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각자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저절로 유전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고난을 동일하게 아들 이삭에게 겪게 하시면서 신앙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 그대로 이삭에게 재확인 시켜 주신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이 당신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부전자전 (?)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6:6~11)

- (6 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וַיֵּשֶׁב יִצְחָק בְּגֵרָר)
- (7 절)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וַיִּשְׁאַלוּ אַנְשֵׁי הַמָּקוֹם לְאִשְׁתּוֹ וַיֹּאמֶר)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אָחתי הִוא)
왜냐하면 그는 “내 아내”라고 말하기 두려웠습니다. (כִּי יָרָא לֵאמֹר אִשְׁתִּי)
그는 ‘그곳의 사람들이 매우 아름다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פֶּן־יַהַרְגֵנִי אַנְשֵׁי הַמָּקוֹם עַל־רִבְקָה כִּי־טוֹבת מְרָאָה הִיא)
- (8 절) 이삭이 그곳에 있는 지 많은 날이 지났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וַיְהִי כִּי אָרְכוּ־לוֹ שָׁם הַיָּמִים וַיִּשְׁקֹף אַבְיִמֶלֶךְ מִלְּקַף פְּלִשְׁתִּים בְּעַד הַחַלּוֹן)
그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았습니다.
(וַיֵּרָא וַהֲגָה יִצְחָק מִצְחָק אֵת רִבְקָה אִשְׁתּוֹ)
- (9 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וַיִּקְרָא אַבְיִמֶלֶךְ לְיִצְחָק וַיֹּאמֶר)
보시오. 그녀는 당신 아내가 확실합니다. (אָךְ הִנֵּה אִשְׁתְּךָ הִוא)
어떻게 당신은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합니까? (וַאִיךָ אָמַרְתָּ אָחתי הִוא)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יו יִצְחָק)
그녀로 인해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כִּי אָמַרְתִּי פֶן־אָמוּת עָלַיָּהּ)
- (10 절)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יִמֶלֶךְ)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합니까? (מַה־זֹּאת עֹשִׂיתָ לָּנוּ)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의 아내와 거의 동침할 뻔하였습니다.
(כְּמַעַט שָׁכַב אִחַד הָעָם אֶת־אִשְׁתְּךָ)
당신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할 뻔했습니다. (וַהֲבֵאתָ עָלֵינוּ אֲשָׁם)
- (11 절) 아비멜렉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וַיִּצַּו אַבְיִמֶלֶךְ אֶת־כָּל־הָעָם לֵאמֹר)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할 것이다.
(הַנִּגַּע בְּאִישׁ הַזֶּה וּבְאִשְׁתּוֹ מוֹת יוּמָ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의 행로를 미리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생각지도 않은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는 그랄 땅에 머물렀다. 그 땅에 사는 토박이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 물어 왔다.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성경은 그가 리브가를 “내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한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부전자전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행동했다. 피는 못 속이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지 이삭이 겁쟁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으로만 이해해서

는 안 된다. 성경은 이삭이 거짓말을 한 것보다도 이 일로 인해 일어난 그랄 공동체의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듯이 이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 철저하게 침묵하신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곳 사람들의 반응이다.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에 예전에 아브라함도 온 적이 있다.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이자 곧바로 자신들의 왕에게 그녀를 데리고 갔다. 이 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은 밤새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바로 그 땅에 지금은 이삭이 왔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였다. 그런데 그때 겪은 일 때문인지 그랄 공동체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행히 아무도 리브가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흘렀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우연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일이 당시 규범대로 근친상간이 아니라 정당하고 떳떳한 행위라면 이삭이 아비멜렉을 속인 게 된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였다. 속을 뻘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그는 이삭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다.

“보시오, 그녀는 당신 아내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망신살이 뻘쳤다. 이삭은 창피하고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아비멜렉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을지도 모른다. 이삭은 솔직하게 이야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기왕에 모든 것이 탄로가 났으니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녀로 인해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의 대답은 굳더더기 하나 없이 솔직했다. 솔직히 리브가를 다른 남자에게 뺏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뻔도 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한 직후에 말이다. 이삭은 목전에 닥친 위협에 그렇게 대처했다.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무시하고 말았다. 위협에 처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공허한 헛약속일 뿐이었다. 이삭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비멜렉의 눈조차 쳐다보지 못했으리라. 고개를 떨구고 대역죄인처럼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이가 없는지 아비멜렉도 아무 말이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개를 떨구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이삭을 향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합니까?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의 아내와 거의 동침할 뻔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할 뻔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즉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삭이나 리브가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하게 될 거라고 단단히 경고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한데는 이전 세대에 겪었던 아픈 기억 때문일 것이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사라를 아비멜렉 집으로 들였다가 혼쫓이 난 적이 있다. 당시에 겪었던 일이 세대를 이어가며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삭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 완전히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이전 세대부터 이미 단단히 훈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

는지 이해가 된다.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걸 알려주시고자 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신실하셨다. 사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면서 그가 한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분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실수와 실패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살든, 때론 세상이 무서워 비겁한 행동을 하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견고하게 훈련시키신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 왔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나요?